



파워풀한 SUV 본연의 느낌을 강조한 'KR10' 디자인 이미지.
사진제공 | 쌍용차

“강인한 SUV 느낌…쌍용차 미래 이끈다” 차세대 SUV ‘KR10’ 디자인 스케치 공개

쌍용자동차가 강인하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춘 차세대 SUV ‘KR10(프로젝트명)’의 디자인 스케치 이미지를 26일 공개했다.

스케치 공개만으로도 “예전 코란도와 무쏘에서 느낄 수 있었던 쌍용차만의 강인한 SUV 느낌이 드디어 돌아왔다. 쌍용차의 미래를 이끌 디자인이다”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KR10은 새로운 디자인 비전 및 철학인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쌍용차 고유의 헤리티지인 강인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쌍용차는 새롭게 선보일 KR10에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강 쌍용차 디자인센터상무는 “KR10을 통해 쌍용자동차 고유의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디자인 비전 및 철학을 재정립했으며, 쌍용차가 나아갈 미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됐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쌍용차는 독창적인 정통 SUV 본질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브랜드를 계승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KT&G,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KT&G(사장 백복인)가 주요 사업장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안전보건경영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대상은 KT&G가 보유한 공장 다섯 곳(신탄진, 광주, 영주, 김천, 천안)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예방 대책을 수립한 점과 안전교육, 점검 활동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T&G는 노사가 함께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등 주요 정책에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건강한 회사 생활을 지원하고자 2004년부터 정기적으로 공정별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조사해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GS칼텍스, 카카오모빌리티에 300억 투자

전기차·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협력관계 구축

주유소 등 보유 인프라 시설 고도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거점 활용
카셰어링 드론배송 등 신사업 투자



허세훈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

GS칼텍스(대표 허세훈 사장)가 GS에너지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에 총 300억 원을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기술 혁신 대응에 나선다. GS칼텍스는 26일 GS칼텍스가 250억 원, GS에너지가 50억 원을 투자해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0.73%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향후 신규 플랫폼 및 기술 대응을 위한 확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인프라 및 네트워크 사업기반 업체 중 카카오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은 GS칼텍스가 처음이다.

●주유소 인프라와 모빌리티 역량 결합

GS칼텍스는 자사 주유소 인프라와 카카오모빌리티의 미래 모빌리티 역량 및 기술 대응을 위한 확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인프라 및 네트워크 사업기반 업체 중 카카오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은 GS칼텍스가 처음이다.



미래 에너지 모빌리티 변화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발맞춰 전기·수소·마이크로모빌리티 충전, 카셰어링 서비스 등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GS칼텍스의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사진제공 | GS칼텍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다. 카카오 T와 카카오 내비를 통해 택시, 기차, 버스, 대리운전, 주차, 내비게이션 등 모든 이동수단을 아우르는 통합교통서비스(MaaS)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 관련 다양한 빅데이터와 고도화된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차량 정비, 방문 세차 등의 내차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고 소화물 운송 등에 도전하며 사람은 물론 사물과 서비스의 이동까지 포괄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이번 투자와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등 미래 기반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주유소, 충전소

등 보유 인프라 시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미래 기술을 접목해 GS칼텍스만의 어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가능할지 모색해보겠다는 의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GS칼텍스의 인프라를 사물의 이동 서비스, 주차장 사업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오프라인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영 택시에 대한 차량 정비, 연료 보급 등의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확대해 나간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서로 다른 기술이 융합하는 협업의 장으로 이종업계간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투자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사업 추진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GS칼텍스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카셰어링, 커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관련 분야는 물론 다양한 기업과 협업 및 제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에는 주유소에서 비대면 주유·결제 서비스를 위해 커넥티드 카 기술 전문기업인 오원에 투자했으며, 공유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객의 모빌리티 이용 형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국내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에 10% 지분 투자하며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인천, 제주, 여수에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배송 시연 행사를 선보이기도 했다. 주유소를 드론 배송 거점으로 활용함에 따라 향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지난해 7월 ‘전기자동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유소 유휴공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자동차인 ‘카카오 T배터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GS칼텍스 LPG 충전소를 활용해 ‘택시 차고지 밖 기사 교대 샌드박스 규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협업을 지속해 나가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LG ‘톤 프리’ 신제품 3종 출시…하반기 무선이어폰 경쟁 스타트

3종 모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탑재
유해 세균 99.9% 제거 UVnano 지원

빠르게 성장 중인 무선이어폰 시장 경쟁이 하반기 더 뜨거워진다. 시장을 주도하는 애플은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잇달아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공개 나선 것은 LG전자다. 이 회사는 무선이어폰 ‘톤 프리’ 신제품 3종(TONE-TFP9, TONE-TFP8, TONE-TFP5)을 26일 출시했다. 3종 모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해 외부 소음이 차단된 상황에서 메리디안의 프리미엄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또 ‘하이브리드 진동판’을 적용해 부드러운 저음과 강력한 저음을 내고, ‘3D 사운드 스테이지 EQ’ 모드도 지원해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구현했다.

전작보다 강화된 위생관리 기능도 갖췄다. 신제품(TONE-TFP9, TONE-TFP8)은 대장균 등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주는 UVnano 기능을 지원한다. 케이스에 이어폰을 5분만 넣어두면 된다. LG전자는 또 이어폰이 귀에 직접 닿는 소재임을 감안해 국제표준규격(ISO 10993) 피부 접촉 관련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무독성·저자극성 실리콘 소재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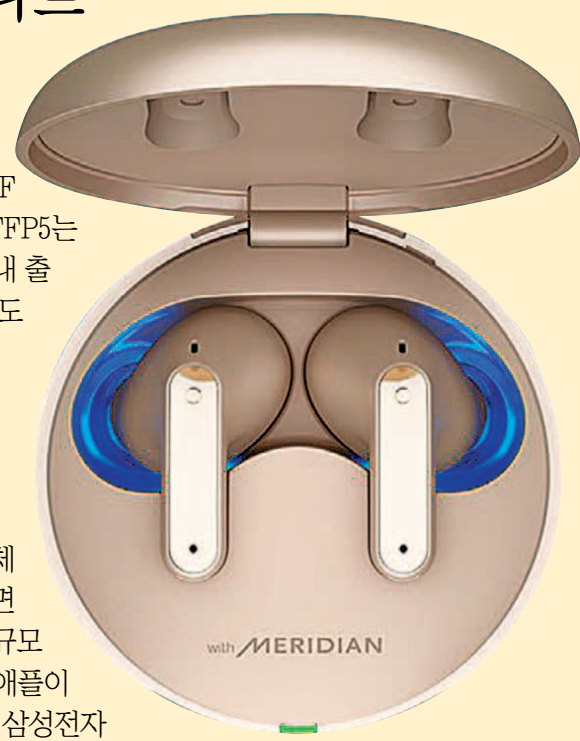
TONE-TFP9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기기에서도 무선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러그&와이어리스’ 기능도 넣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 충전 크래들을 멀티미디어 단자와 연결하면 무선이어폰으로 송출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밖에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0시간(TONE-TFP5는 8시간) 동안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고속충전 기능도 지원한다. 출고가는 TONE-TFP9는 24만9000원, TONE-TFP8은 21만9000원, TONE-TFP5는 16만9000원이다. LG전자는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에도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무선이어폰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반기에 애플은 ‘3세대 에어팟’을, 삼성전자는 ‘갤럭시버즈2’를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세계 무선이어폰 시장 규모는 6400만 대다. 점유율은 애플이 26%로 1위고, 샤오미(9%)와 삼성전자(8%)가 그 뒤를 쫓고 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LG ‘톤 프리’ 신제품.

뇌가 색식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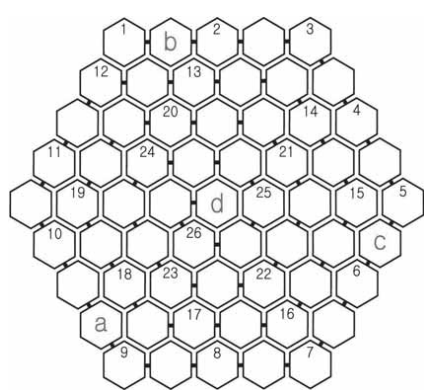
		8		1		4	6	
4			2		8			
2					4			8
	8	4	7		1		9	
3								7
	2		4		6	5	8	
1			8					9
			9		7			6
	9	2		5		8		

	6		2		9			
		5		1		3		8
	9				5		2	
4		1		9				6
	7		3		6		1	
6				7		9		3
	1		7				4	
8		4		2		1		
			1		4		3	

■ 스도쿠정답

4	8	6	5	1	2	6	9	
9	2	1	7	6	8	5	9	8
6	5	8	2	9	8	7	1	3
1	8	9	9	6	7	6	2	4
7	7	2	6	8	9	1	9	8
8	6	9	1	2	7	4	8	5
8	1	6	7	7	9	5	8	2
5	8	7	8	6	2	9	1	7
2	9	7	5	1	8	8	7	6

■ 낱말문제



■ 열쇠

01.머리털 등이 난잡하게 일어서거나 흩어진 모양. 02.인기 스타의 지위. 또는 신분. 03.남에게 넘겨 씌우거나 넘겨 맡는 큰 격정거리나 허물 따위. ‘오티오’ 04.학교나 회사 따위

에 팔려 있어 학생이나 사원에게 쓴 값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 05.네모반듯한 정자. 06.뜰에 심어 가꾸는 나무. 07.상수도에 보낼 물을 모아 두는 곳. 08.쓴 글씨나 그림을 지우는 물건. 09.아주 큰 망신. ‘오코오신’ 10.새로운 세상. 11.오랫동안 끌어 가며 싸우는 싸움. 12.임체의 표면을 적당히 잘라 평면 위에 펼쳐 놓은 도형. 13.채색을 올리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오채오이’ 14.다른 나라 사람. ‘오방오’ 15.사람을 물건처럼 팔고 삼. 16.차표나 입장권 따위의 표를 파는 창구. 17.사람의 말을 잘 흉내 내는, 비둘기 비슷한 찌르레깃과의 새. 18.작은 배. 편주. 19.돈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주의. 20.뜻한 바를 이루어 만

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21.뜰보 위의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22.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 23.아주 깊은 산천. 24.세상 사물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각각 모습·모양이 다름. ‘오태오상’ 25.위와 가운데와 아래. 26.집. 가족. 비닐 ‘오오오’.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a~d 칸을 이어놓으면 꽃 이름이 됩니다.

